

동아시아 식민질서와 동남아시아: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

박 사 명**

I. 서론

지역질서는 일정한 지리적 권역에서 국제적 갈등의 평화적 관리를 위하여 운용되는 일련의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기제로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중국중심적 조공책봉체제(朝貢冊封體制)의 중화질서,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帝國共助體制, Concert of Empires)의 식민질서,¹⁾ 일본중심적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대화질서(大和秩序)’²⁾ 미소(美蘇)중심적 지역분단체제의 냉전질서 등으로 전변한다. 중화질서와 ‘대화질서’는 동아시아의 역내세력이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질서인 반면 식

* 이 논문은 2009년도 강원대학교 기성회 연구년교수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고, 한국동남아학회 추계학술대회(2009년 10월 30일)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보완된 것이다. 여러 토론자 및 심사자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한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동아시아의 식민질서는 ‘협력적 제국주의(cooperative imperialism)’ 또는 ‘제국주의의 카르텔’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19세기 유럽의 대국공조(Concert of Powers)와 그것이 동아시아에 투영되는 양상을 고려하여 ‘제국공조체제(Concert of Empires)’라 한다(Beasley 1987: 17; 이삼성 2009: 231-61).

2) 일본은 1931년 이후 만주, 중국, 동남아 등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서구열강의 다원적 식민질서를 일본패권의 일원적 식민질서로 재편하고자 한다. 이른바 일본정신-‘대화혼(大和魂)’-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팔괘일우(八紘一宇)’의 ‘대동아공영권’을 도모하는 일본중심적 식민질서를 여기에서는 중화질서에 대응하여 ‘대화질서’라 한다(李濤 2007; 伊藤幹彦 2005: 121-65; 郝祥滿 2007: 75-79).

민질서와 냉전질서는 동아시아의 역외세력이 주도하는 외생적 지역 질서이다. 동아시아의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에서 동북아의 위상은 시간적으로 단기적이고 공간적으로 주변적인 반면 동남아의 위상은 시간적으로 장기적이고 공간적으로 중심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식민질서에 관하여 동북아에 편향되는 한국적 시각은 그 전개과정의 역동성과 내부구조의 중층성에 대한 전일적(holistic) 이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백영서 외 2005; 이삼성 2009).

동아시아 식민질서는 50년(1880s-1920s) 내지 100년(1840s-1930s)에 걸쳐 동아시아 역내의 국제적 갈등을 나름대로 평화적으로 관리한다. 이른바 ‘제국의 평화(imperial peace)’는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그와 같은 현실적 기능을 부각한다. “서구세력이 이 [동남아]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함에 따라 ‘제국의 평화’가 정착된다. 식민주의는 폭력과 강압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 강화되는 집권적 정부가 종전에는 싸움이 끊임없던 왕국, 마적, 해적, 노예납치조직, 부족군장, 지방군벌 등의 경쟁에 일정한 질서를 부과한다”(Owen 2005: 227). 그러나 동남아 식민질서의 상대적 안정성은 동북아 식민질서의 지속적 유동성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구중심적 식민질서는 동남아 군도권(말레이군도, 인도네시아군도, 필리핀군도), 동남아 반도권(말레이반도, 미얀마, 태국, 인도차이나반도), 동북아 대륙권(중국, 한국, 일본) 등 세 지리적 권역에 따라 상당히 불균등한 측면을 내포하므로 그에 대한 정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동아시아의 식민질서에 대한 정합적 이해에 있어서 동북아는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평적 세력균형이 아닌 모든 지역질서는 수직적 위계구조(hierarchy)로 구성되지만, 그 위계성의 상대적 수준은 현실적으로 다양하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공식적 위계구조와 비공식적 위계구조로 구분되지만, 실질

적으로는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절대적 종속성에서 상대적 자율성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는 근대적 주권국가 원칙이 배제되는 공식적 위계구조인 중화질서, 식민질서, ‘대화질서’와 근대적 주권국가 원칙이 전제되는 비공식적 위계구조인 냉전질서로 구분된다. 그와 같은 동아시아의 각종 형식적 위계구조에 있어서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실질적 자율성은 그것이 최소화되는 식민질서에서 그것이 최대화되는 냉전질서까지 다양한 수준을 드러낸다. 요컨대 동일한 공간적 조건에서도 시간적 조건에 따라 자율성의 수준은 다양하며, 동일한 시간적 조건에서도 공간적 조건에 따라 자율성의 수준은 다양하다.

이 연구는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의 기계적 경계를 부정하고 그 유기적 연계를 부각하는 전일적 접근시각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한 유형으로서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전개과정과 내부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의 일본중심적 식민질서에 대한 부각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근본적 성격을 간과하는 파편적이고 편향적인 접근시각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과정은 동남아에 대한 식민지 분할과 동북아(중국)에 대한 세력권 분점의 유기적 상호의존에 주목하는 전일적 시각에서만 온전하게 해명될 수 있다.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의 식민질서는 동남아 각지에 대한 장기적 식민화에 기초하여 동북아 각지로 확장되며, 일본은 그 최종국면에서 그러한 지역질서에 편승한다. 이 연구는 중화질서와 ‘대화질서’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는 식민질서에 내재하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유기적 연계를 구명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동남아의 긴요한 위상을 강조할 것이다.

II. 식민질서의 형성과정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형을 통제한다. 그것은 내생적 지역질서인 중화질서와 대조적으로 서구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파생하는 외생적 지역질서이다. 그러한 식민질서를 주도하며 서구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영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범주이다. 영국도서관의 주제색인에 의하면, 식민시대 아시아에 관한 각종 지명 가운데 ‘Asia’ 또는 ‘Orient’ 이외에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Far East’ 즉 극동 또는 원동이다(Shimizu 1993: 25). 그것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와 중첩하는 지리적 범주이다.³⁾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지리적 외연은 한자와 유교의 문화적 전통을 전유하는 동북아에 국한되는 협의의 동아시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현실적 역학을 공유하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인 것이다.

1. 지역외적 동인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형성과정을 주도하는 외부적 동인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발전과 정치변동의 상승작용으로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서구열강은 동남아에 대한 식민지 분할과 동북아에 대한 세력권 분점을 양축으로 하는

3) 동남아시아 지명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1943년 연합군 동남아시아령부(Southeast Asia Command)도 그 원명은 극동사령부(Far East Command)이다. 1940년 영국 극동사령부와 1941년 미국 극동사령부가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마닐라에 설치된다. 일본정부는 1941년 이른바 ‘대동아전쟁’의 개전 직후 내각회의에서 ‘극동’을 영국중심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와다 2004: 63).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중심적 동력으로 기능한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부각되는 19세기 후반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 즉 ‘신제국주의’에 이르면 동남아 각지는 식민지로서 그 주권이 분할되고, 중국 각지는 세력권으로서 그 이권이 분점된다. 포르투갈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 말라카(Malacca)를 점령하는 1511년 이후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쟁, 17세기 네덜란드의 패권,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19세기 영국의 패권 등이 역동적으로 부침한다(김기정 2005: 131-32; Thomson 1988: 76). 서구사회의 그러한 변동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주축은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을 거쳐 금융자본으로 이동하는바, 서구열강과 동아시아의 운명이 반전되는 역사적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이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상업자본의 ‘원시축적’은 산업혁명의 물질적 기반을 조성한다(Frank 1998: 276-83).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경공업 중심의 제1차 산업혁명은 산업자본의 확장을 가속하고, 19세기 후반 중공업 중심의 제2차 산업혁명은 금융자본의 등장을 촉진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열강의 접근을 추동하는 유인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하다(Hobsbawm 1989: 59-62; Tarling 2001: 6-15).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에즈운하(1869)의 개통과 이탈리아(1870) 및 독일(1871)의 통일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강화되는 서구열강의 민족주의적 경쟁이라는 정치적 동인이다. 모든 열강의 궁극적 목적지는 중국이며, 동남아는 그 교두보로 설정된다. 그러나 허약하고 분열된 동남아와는 전혀 대조적인 중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남경조약(1842)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하여 열강의 기회균등을 담보하는 영국의 기획인 것이다(Watson 1984; Beasley 1987: 17; 陳峰君·祁建華 2007: 128-33).

서세동점은 크게 세 단계를 통하여 전개된다. 제1단계(1511-1814)

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동아시아 각지에 침투하여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고 중화질서에서 파생하는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에 편승한다(濱下武志 1999; Blussé 2009; Hamashita 2008). 제2단계(1815-1840)에는 나폴레옹전쟁(1799-1815) 이후 유럽의 세력균형을 반영하는 동아시아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가 부상한다. 제3단계(1841-1930)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공조체제의 식민질서가 중화질서를 단계적으로 대체한다(Hobsbawm 1989: 56-59). 서구열강의 그러한 역량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한다. 세계적 공업생산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비중은 1800년 각각 32.8%와 19.7%로서 합계 50%를 상회하지만, 1900년 각각 6.2% 및 1.7%로서 합계 10% 미만으로 하락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비중은 1800년 각각 28.1% 및 0.8%로서 합계 30% 미만에서 1900년 각각 62.0% 및 23.6%로서 합계 85%를 초과하게 된다(Kennedy 1987: 149).

2. 지역내적 동인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 있어서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는 중화질서의 현상유지에 연연하는 중국의 약화와 중화질서의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일본의 부상이다. 중국의 경우 명대(明代, 1368-1644) 초반 정화(鄭和)의 해상원정(1405-33) 이후 ‘해금(海禁)’ 즉 민간무역 금지조치가 단행되고, 중화질서의 전략적 요충 가운데 하나인 말라카에 대한 해군병력의 파견이 중단된다. 결국 동남아의 서세동점 및 왕조교체와 중국의 해금해제 및 영토확장--서남(운남), 동북(만주), 북부(몽골), 서북(신강), 서부(티벳)--에 따라 중화질서의 동부 및 남부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만 조공관계가 유지된다. 명대 초반 100개를 훨씬 상회하던 조공국

이 청대(清代, 1644-1911)의 아편전쟁 무렵에는 한국(朝鮮), 유구(琉球), 태국(暹羅), 베트남(安南), 필리핀(蘇祿), 라오스(南掌), 미얀마(緬甸) 등 불과 7개로 감소하는 것이다(李雲泉 2004: 77-78, 143-45; 祁美琴 2007: 5).

산업혁명으로 인한 서구와 중국 사이 국력의 급속한 반전은 외교 관계의 역전을 초래한다. 1793년 영국 특사의 조공의례 거부 이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모두 동아시아의 조공국과 동일한 조공의례를 통하여 중화질서에 적응한다(Stuart-Fox 2003: 96). 그러나 명조(明朝)는 서구의 도전 이전에 이미 근접한 서북지역의 안보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격한 동남지역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화된다. 1511년 포르투갈의 침투에 대한 말라카의 지원 요청을 외면하고, 16세기 후반 미얀마의 태국 남부 침략과 캄보디아의 태국 동부 침입에도 명조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서남지역의 타이족 왕조에 대한 미얀마의 병탄에 대해서도 명조는 반응하지 않는다. 1541년 베트남의 왕권승계 분쟁도 기정사실로 수용된다(Stuart-Fox 2003: 101-03). 따라서 중화질서의 해체를 선고하는 1884년 청불(淸佛)전쟁과 1894년 청일(淸日)전쟁의 군사적 대응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태이다.

동아시아의 중화질서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위상은 ‘편입’ 아닌 ‘편승’으로 평가되는바, 중화질서의 수익과 비용 가운데 전자는 수용하고 후자는 거부하는 ‘무임승차’의 대표적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명대 전반의 150년(1404-1547) 동안 19회의 조공 이외에는 중화질서에서 철저히 이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은 중화질서에서 파생하는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무역항로와 해상안보 등 ‘지역적 공공재’를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향유한다(濱下武志 1999; 楊金森·范中義 2005; 郝祥滿 2007; Hamashita 2008). 그러한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국력의 급속한 신장에 따라 1871년-1879년 유구, 1874년-1895년 대만(臺灣), 1905년-1910년 한국 등을 단계적으로 병탄함으로써 중화질서에 대한 동아시아 외부의 도전과 조응하여 그 해체를 가속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제국공조체제를 일본의 단독패권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는 1931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중국중심적 중화질서가 청일전쟁 직후 일본중심적 지역질서로 재편된다는 시각은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에만 주목하는 동북아중심적 시각에 불과하다(王正毅 2000: 341-42). 일본은 1842년 영국에 투항하는 중국과 1853년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로 접근하는 미국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 1854년 문호개방을 단행한다.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최종적 해체를 초래하는 청일전쟁은 1865년 중국의 양무운동(洋務運動)과 1868년 일본의 명치유신 사이 30년에 걸친 부국강병 경쟁을 심판한다.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제한적 서구화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전면적 서구화 사이 역사적 대결은 전자의 식민화와 후자의 제국화로 귀결된다. 일본이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폐허를 넘어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에 가담하는 것이다.

Ⅲ. 식민질서의 지리구조

서구열강의 치열한 민족주의적 경쟁과 갈등은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현상유지라는 공동이익을 위한 공존과 협력의 제국공조체제를 전제한다. 그것은 끊임없는 충돌과 절충을 통하여 확장되고 심화되는 역사과정의 산물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세력권을 대서양 이동과 이서로 조정하는 1493년 교황칙서 이후 다양한 세력의 각종 타협을 통하여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다(Legarda

1999: 11). 가장 중요한 계기는 나폴레옹전쟁 이후 유럽의 새로운 지역질서로서 대국공조(Concert of Powers)와 세력균형에 합의하는 1815년 빈(Vienna)회의, 아프리카의 식민지 분할에 담합하는 1885년 베를린(Berlin)회의, 제1차 세계대전(1914-18) 이후 민족자결을 동부유럽에만 적용하는 1919년 베르사유(Versailles)회의, 일본의 중국독점을 견제하는 1922년 워싱턴(Washington)회의 등이다(표 1).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민감한 서구열강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서 동남아와 동북아는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지정학적 권역을 구성한다.

<표 1> 동아시아 제국공조체제의 형성과정

연도	회의 명칭	관련 국가	합의 내용
1494	Tordesillas조약	포르투갈 스페인	희망봉 동서의 분점
1529	Zaragoza조약	포르투갈 스페인	필리핀 몰루카 분점
1815	Vienna회의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유럽의 세력균형
1824	영화(英和)조약	영국 네덜란드	동남아 군도권 분할
1842	남경(南京)조약	영국 중국	열강의 기회균등
1858	천진(天津)조약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이권의 분점
1885	Berlin회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 분할
1895	삼국(三國)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요동 일본독점 견제
1896	영불(英佛)선언	영국 프랑스	동남아 반도권 분할
1901	신축(辛丑)조약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세력권의 분할
1902	영일(英日)동맹	영국 일본	한국과 중국의 분점
1905	제2차 영일동맹	영국 일본	한국과 인도의 분점
1905	Taft-Katsura밀약	미국 일본	한국과 필리핀 분점
1905	Portsmouth조약	일본 러시아 (미국의 조정)	중국 일본독점 견제
1907	불일(佛日)협약	프랑스 일본	극동의 현상유지
1908	Root-Takahira협정	미국 일본	극동의 현상유지
1919	Versailles회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동유럽의 민족자결
1922	Washington회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일본 중국독점 견제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대륙권에서 동남아 반도권을 거쳐 동남아 군도권으로 확산되는 중화질서와 대조적으로 식민질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남아 군도권(말레이군도, 인도네시아군도, 필리핀군도)에서 동남아 반도권(말레이반도, 미얀마, 태국, 인도차이나반도)을 거쳐 동북아 대륙권(중국, 한국, 일본)으로 확장된다. 그 세 권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성은 서세동점의 속도를 다양하게 제약한다. 왕조의 전통이 거의 전무한 군도권의 필리핀과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륙권의 중국이 가장 대조적인바, 필리핀은 가장 일찍 식민지로 전환하는 반면 중국은 가장 늦게 준식민지로 전락한다. 요컨대 동아시아에 침투하는 서구열강의 중심적 유인이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최종적 목적지는 모두 중국이며, 동남아는 단계적 교두보로 설정된다(Fernandez 1977: 539-45; Wyatt 1982: 109; Legarda 1999: 26; SarDesai 1997: 112-16; Stuart-Fox 2003: 121-22).

1. 동남아 군도권

16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말라카, 자바, 필리핀, 보르네오,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군도권,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반도권, 대만, 마카오(Macao, 澳門), 아모이(Amoy, 廈門) 등 동북아 대륙권에 거의 동시에 접근하여 전략적 거점을 구축한다. 각국은 연안의 항만과 그 주변에 상관(商館, factories)과 조계(租界, settlements)를 설치하여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고, 중화질서의 공식적 조공무역과 거기에서 파생하는 각종 경로의 비공식적 민간무역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에 편승한다(濱下武志 1999: 22-40; Hamashita 2008). 그들은 유럽에 대한 역외무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아의 역내무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바, 동남아의 향료, 후추, 커피, 설탕 등 환금작물과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 등 사치품목에 대한 수탈적 교역을 통하여 산업혁명을 위한 상업자본의 ‘원시축적’이 전개된다.

16세기에는 동아시아의 해상패권을 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17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대체하여 네덜란드가 1602년 자바(자카르타), 1634 대만, 1635년 일본(나가사키),⁴⁾ 1641년 말라카 등 전략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해상 패권을 확보하고, 18세기에는 네덜란드를 대체하여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중상주의적 경쟁이 강화된다. 그러나 그 18세기까지도 ‘중국의 세기’로 평가될 만큼 ‘아시아의 지중해’ 곧 남중국해를 통하여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계하는 동아시아의 교역 네트워크는 여전히 중화질서에 기반하는 것이다(Blussé 2009). 영국이 1811년 점령하는 자바에 대한 식민화를 포기하고 1816년 다시 네덜란드에 반환하게 되는 것은 유럽에서의 프랑스에 대한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네덜란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요구 때문이다.

동북아 대륙권의 경우 창조는 1684년에 ‘해금(海禁)’을 전격적으로 해제하고, 1685년 광주(廣州, Canton)를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그에 따라 1840년 아편전쟁 이전에는 광주가 포르투갈이 관할하는 마카오(1557-1849) 및 스페인이 관할하는 아모이(1730-1842) 이외에는 중국의 유일한 대외적 창구로서 기능한다. 조공무역을 보완하여 동북아 대륙권(일본, 유구)과 동남아 군도권(필리핀, 보르네오)을 거쳐 동부 자바에 이르는 ‘동양항로’ 및 동남아 반도권(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라야)을 거쳐 서부 자바에 이르는 ‘서양항로’의 민간무

4) 일본의 나가사키(長崎)항 무역에 대한 네덜란드의 독점권은 유럽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 국한되며, 동아시아의 경우 동남아,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중국선박(唐船)의 중계무역도 허용된다(Ishii 1998, 8-9).

역이 성행한다. 주로 중국계 화상(華商)이 운항하는 중국선박(唐船)이 이용된다(Stuart-Fox 2003: 97). 그러나 동남아 군도권의 자바와 필리핀에 대한 점진적 식민화과정을 제외하면 동남아 반도권 및 동북아 대륙권에 대한 식민화는 전혀 시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세동점의 장기적 교두보로서 동남아 군도권의 중심적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2. 동남아 반도권

동남아 군도권의 식민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동남아 반도권은 오히려 전통적 왕국의 통합과 발전에 따라 서세동점이 지연된다. 18세기 후반 이후 미얀마의 콘바웅(Konbaung) 왕조(1752-1885), 태국의 차크리(Chakri) 왕조(1782-1932), 베트남의 응우옌(Nguyen) 왕조(1802-1885) 등 강력한 왕국이 출현한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지에 대한 식민화 시도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단계에 이르면 동남아 반도권에서는 오히려 각국의 관료조직과 경제구조가 강화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SarDesai 1997, 84). 한편 제1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영국의 경우, 공업원료의 공급기지와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막강한 해군이 ‘자유무역 제국주의’의 물리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요컨대 폐쇄적 식민지의 분할보다 개방적 무역권의 확보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해상패권을 위한 영국의 기획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전략적 중요성은 식민지 인도의 안보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무역항로에도 긴요한 그 지리적 위상과 역할에서 파악된다. 영국은 1819년 싱가포르를 확보하는바, 서세동점의 초기단계에서 말라카가 담당하던 전략적 위상과 역할이 싱가포르로 이전된다.⁵⁾ 그에 따른 자유무역의 확산과 영국패권의 강화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다. 사실 18세기 중반 영국의 경제학자 스미스(Adam Smith)는 자유무역의 수익이 식민지배의 비용을 압도한다고 설교한다. 1776년 미국의 독립에 대한 그의 논평에 의하면(Tarling 2001: 31),

대영제국은 매년 식민지의 평화정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서 즉각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식민지와의 자유무역을 위한 통상조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자유무역은 영국이 현재 향유하는 독점무역보다 상인에게는 덜 유리하더라도 대다수 인민에게는 더 유리하다. 그러한 우호관계에 따라 모국에 대한 식민지의 자연적 애정도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영국적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위장하는 스미스의 영국중심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갈파하는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Friedrich List)에 의하면(Tarling 2001: 32),

무력수단을 바탕으로 보편적 지배권을 건설하고자 시도하던 자들의 야망은 그 영토 전체를 거대한 공업과 상업의 도시, 거대한 항구로 전환함으로써 마치 농촌과도 같은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예술과 지식의 중심, 방대한 자본의 보고, 보편적 은행 등으로서 기능하는 도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는 영국의 위대한 시도에 비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해산(1815년), 필리핀 대범선무역(galleon trade)의 중단(1815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해산(1858년) 등

5) 1819년 영국의 초대 싱가포르 식민관 래플즈(Stamford Raffles)에 의하면, “우리의 목적은 영토가 아니라 무역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상업의 중심축이며 상황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이다. 이 해역의 자유항 하나가 결국 네덜란드의 독점체제를 타파하게 될 것이다. 서양에서 몰타(Malta)가 담당하는 역할을 동양에서는 싱가포르가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SarDesai 1997: 92).

독점무역의 해체에 따라 동아시아의 자유무역은 19세기 중반 그 절정에 도달한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단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동아시아를 석권하는 ‘자유무역 제국주의’는 중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독점적 식민화를 배제함으로써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에 기여한다.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의 경쟁이 가열되고, 보호무역을 통한 독일과 미국의 추격이 가속되며, 명치유신을 통한 일본의 도전이 강화된다. 동아시아에 대한 영국패권이 점차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것이다(O'Brien 2002). 그와 같이 새로운 정치경제적 지형에서 중화질서를 대체하는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정착 과정을 통하여 동남아 반도권에 대한 식민지 분할은 동북아 대륙권의 중국에 대한 세력권 분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⁶⁾

3. 동북아 대륙권

19세기 중반 이후 동북아 대륙권에 대한 서구열강의 세력권 분점은 동남아 반도권에 대한 식민지 분할과 긴밀하게 연계됨으로써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의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1870년대 이전 동아시아에 대한 영국패권의 ‘자유무역 제국주의’는 서구열강 내부의 영합적(zero-sum) 갈등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제어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187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식민질서는 제2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금융자본의 출현에 따라 급속하게 심화되는 경제적 갈등에 직면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분할을 위한 베를린회의(1884-85)가 이룬 유럽열강의 대국공조 성과는 동아시아 제국공조체제의 현상유지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Albrecht-Carrié 1973:

6) 동남아 전체면적의 70% 이상은 186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식민화된다(SarDesai 1997: 140).

193-94).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영국의 식민화는 인접한 중국의 운남성 및 티벳에 대한 세력권 확보와 연계되고,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화는 인접한 중국의 광둥성 및 광서성에 대한 세력권 확보와 연계된다(표 2).

<표 2> 식민지 분할 및 세력권 분점

제국	동남아 군도권	동남아 반도권	동북아 대륙권
포르투갈	1511 말라카		1557 마카오(澳門)
스페인	1571 필리핀		1575 아모이(廈門)
네덜란드	1602 자바		1634 대만
	1641 말라카		1635 나가사키
영국	1819 싱가포르	1826 미얀마(연안)	1842 홍콩, 동남연안 5항
	1867 해협조계	1852 미얀마(남부)	1858 양자강유역 3항
	1877 사바	1855 태국	1860 구룡반도
	1888 칼리만탄	1874 말라야(남부)	1886 운남 티벳
	1888 브루나이	1885 미얀마(북부)	1898 양자강 위해위
프랑스	1888 사라왁	1909 말라야(북부)	1898 황하-양자강(철도)
		1862 코친차이나	1844 동남연안 5항
		1864 캄보디아	1858 양자강유역 3항 등
		1873 베트남(통킹)	1896 베트남-광서(철도)
		1885 베트남(안남)	1897 베트남-운남(철도)
미국		1893 라오스	1899 광둥 광서 운남
	1898 필리핀		1898 광주-한구(철도)
	1899 서태평양		1898 교주만 산둥 황하유역
			1898 요동 만주(철도)
			1879 유구
일본	1941 인도네시아	1940 베트남	1895 대만
	1941 브루나이	1941 캄보디아	1905 요동 만주(철도)
	1942 필리핀	1941 라오스	1910 한국
	1942 말레이시아	1941 태국	1931 만주
	1942 싱가포르	1942 미얀마	1937 중국

그와 같이 제국공조체제는 1842년 남경조약에서 1901년 신축(辛

丑)조약까지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확장이 수반하는 서구열강의 내부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熊志勇·蘇浩 2005: 172-79). 중국의 경우 1842년 남경조약에서 1901년 신축조약까지 모두 26건의 불평등조약을 통하여 열강의 세력권으로 분할된다(Gang 2009: 12-16).⁷⁾ 그 주요한 내용은 관세통제, 치외법권, 영사재판 등이며, 태국과 일본의 경우도 그와 유사하다(曹大臣 2009). 아편전쟁의 충격에 따라 영국의 무력위협에 굴복하는 태국은 1855년 보우링(Bowring)조약 이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과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만 영국의 세력권으로 귀착한다(Wyatt 1882: 183-88). 일본은 아편전쟁과 미국의 포함외교에 대한 충격으로 문호개방을 수용하는 1854년 미국과의 가나가와(神奈川)조약 이후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불평등조약을 체결한다(Beasley 1987: 14-26).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전에 따라 모든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제국공조체제에 가담한다.

동남아와 동북아는 동아시아의 식민질서에서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기계적 경계가 아닌 유기적 연계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한 서구중심적 제국공체제는 1895년 일본의 가담과 1898년 미국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1931년 일본의 만주점령 이전에는 그 현상유지에 대한 결정적 도전에는 직면하지 않는다. 청일전쟁 당시 영국 수상의 표현과 같이, 세계는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가는 권력’으로 분열되고, 동아시아의 일본은 ‘죽어가는 권력’의 중화질서를 대체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식민질서에 자연스럽게 포섭된다(Kennedy 1987: 195). 유구(1879), 대만(1895), 한국(1910)이 일본제국에 편입되고, 중국은 각종 불평등조약을 통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7) 중국의 불평등조약은 1840년대(영국, 미국), 1850년대(영국, 프랑스, 미국), 1860년대(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890년대(일본)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曹大臣 2009: 72-74).

세력권으로 분할됨으로써 동북아 전역이 제국공조체제에 편입된다. 식민지 또는 준식민지로 전락하는 동북아 대륙권의 정치변동에 따라 마침내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지리적 외연과 기능적 내포가 최대화되는 것이다.

IV. 식민질서의 기능구조

식민질서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제국주의, 경제사회적 차원의 자본주의, 문화이념적 차원의 서구문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중층 구조를 드러낸다.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주의(Leninism) 명제와는 달리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Lenin 1963). 물질적 차원의 자본주의와 관념적 차원의 서구문명이 상승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제국주의적 식민질서는 궁극적으로 정치군사적 선택을 요구한다.⁸⁾ 요컨대 동아시아 식민질서는 당대의 시간적 조건과 공간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열강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다. 그러한 동아시아 식민질서에서 정치군사적 기능은 정치적 복종을 강제하고, 경제사회적 기능은 물질적 보상을 교환하며, 문화이념적 기능은 관념적 동화를 매개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서구중심적 식민질서는 1930년대에 이르면 문화적 동화의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경제적 보상의 비참한 악화를 초래하며, 군사적 강제의 무력한 실패에 직면한다.

8) 그러한 사실은 바로 2차대전 이후 부상하는 냉전질서가 입증하는바, 그것은 주권국가를 배제하는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주권국가를 전제하는 새로운 내용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이다.

1. 정치군사적 기능

식민시대 동아시아에 투입되는 서구열강의 군사력이 동아시아의 면적과 인구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된 최소한의 규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식민질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19세기 중반 스페인에 대한 투쟁과 20세기 초반 미국에 대한 저항에서 필리핀의 민족주의가 경험하는 좌절은 식민질서에 있어서 물리적 폭력수단을 관리하는 군사적 기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실증한다. 동아시아의 서구중심적 식민질서는 일차적으로 중일전쟁의 개전(1937년) 이후 일본제국의 도전에 따라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2차대전의 종전(1945년) 이후 민족주의적 저항에 따라 해체된다는 사실도 식민질서에 있어서 군사적 기능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준식민지 중국과 식민지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제국공조체제가 동원하는 핵심적 자원은 군사적 폭력수단이다.⁹⁾ 그러한 군사적 기능이 작동하는 구체적 방식은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현실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제국주의 열강의 동남아에 대한 공식적 식민지 분할과 중국에 대한 비공식적 세력권 분점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제국공조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은 경쟁과 갈등을 넘어서는 공존과 협력의 성과를 입증한다. 그러나 해상과 육상에서 전개되는 열강의 치열한 군비경쟁에서 드러나는 제국공조체제의 유동적 가변성은 여전히 경쟁과 갈등의 위협을 시사한다. ‘신제국주의’의 절정인 1880년부터 1914년

9) 서구열강의 식민지 군사기구는 일반적으로 정규군과 특수군으로 조직된다. 정규군은 본국병력(장교급 이상) 및 현지병력(하사관 이하), 특수군은 용병조직 및 경찰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타 필요에 따라 민병조직과 자경조직이 동원된다. 현지병력의 경우 서구열강은 분할지배를 위하여 소수민족을 활용하는 반면 일본은 민족주의를 위하여 다수민족을 이용하는 차별성이 뚜렷하다(Tarling 2001; Hack and Rettig 2006).

까지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열강의 군비경쟁이 가열되지만, 획기적 군비증강을 과시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이다.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형성과 관리에 긴요한 서구열강의 해상 군사력에 있어서 1880년 영국의 현저한 우세와 프랑스의 추격, 1914년 영국의 압도적 우세와 독일, 프랑스, 미국의 추격이 부각된다. 특히 1880년까지도 지극히 미약한 수준이던 일본의 해상 군사력이 1914년에 이르르면 러시아를 추월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접근하는 현상이 주목된다(Kennedy 1987: 203).

군사적 폭력수단에 기초하는 식민질서의 정치적 기능은 공식적 식민지의 경우 직접통치와 간접통치의 두 통제기제를 통하여 가동된다(Hack and Rettig 2006: 7-10).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통제기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서로 혼합되거나 교체된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국가형성의 진전과 정부세입의 증대에 따라 간접통치에서 직접통치로 전환된다. 직접통치는 식민지의 대외정책 및 대내정책에 대한 제국의 전면적 통제를 의미하며, 군대, 경찰, 조세, 법률 등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중앙에서 지방까지 정부기능의 직접적 수행으로 나타난다. 간접통치는 식민지의 대외정책 및 대내정책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기능을 비롯한 정부기능의 일부를 토착사회의 전통적 지배세력에 위임함으로써 군대, 경찰, 조세, 법률 등에 대한 간접적 통제로 나타난다(Hack and Rettig 2006: 8). 비공식적 준식민지의 경우, 군사위협, 재정압박, 포함외교 등 각종 강압적 수단을 통하여 토착사회 지배세력의 정부기능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동남아의 경우, 영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주로 간접통치(말레이 반도 및 군도)에 의존하지만, 해협조계(페낭, 말라카, 싱가포르)나 미얀마와 같이 직접통치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문화적 보편주의와 경제적 국가

주의에 입각하여 주로 직접통치(베트남 남부)에 의존하지만, 베트남 북부,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이 간접통치를 구사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네덜란드)와 필리핀(스페인, 미국)의 경우에도 구체적 시기 및 지역에 따라 직접통치와 간접통치가 다양하게 혼합되는 정치적 통제기제가 동원된다. 동북아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대한 직접통치와 만주에 대한 간접통치를 적절하게 병용한다. 동아시아의 식민질서에서 직접통치와 간접통치는 시간적 조건과 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며, 그러한 형식적 통제기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 및 준식민지의 정부기능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방관이다.

직접통치와 간접통치를 불문하고 중화질서의 ‘천조예의(天朝禮儀)’를 대체하는 식민질서의 ‘만국공법(萬國公法)’은 그 조약체제의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조공체제의 형식적 불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조되기도 한다(김용구 1997; 汪暉 2004: 692). 그러나 두 지역질서는 그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공유한다. 두 지역질서의 위계구조는 모두 문화적 영향이나 경제적 역량을 넘어 궁극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에 기인하는 것이다(楊金森·范中義 2005; Wade 2006). 그러한 중국이 감수하는 준식민지적 위상을 실증하는 열강의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은 군사 위협, 조계제도, 치외법권, 영사재판, 경찰파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개되는바, 그 대표적 사례가 중국황제의 열강 외교사절에 대한 접견이다. 그것은 1900년 의화단(義和團)사건에 대한 열강 8국의 군사개입 이후 1901년 신축조약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된다(何偉亞 2007: 294).

2. 경제사회적 기능

식민질서의 물질적 토대로서 동아시아 식민지 및 준식민지의 경제구조가 식량생산 위주의 자급적 토착경제에서 일차산품 수출 위주의 종속적 식민경제로 재편된다. 동남아의 경우 식민시대 중반에 이르면 아자유, 주석, 후추, 코코넛, 기나피, 옥수수 등은 세계적 생산량 또는 수출량의 70-80 %를 점유하며, 특히 고무, 티크, 황마, 쌀 등은 90-100 %에 근접하게 된다(Hack and Rettig 2006: 45). 일반적으로 경제적 변동의 범위와 수준은 다양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가장 철저한 구조적 전환을 경험한다(Golay et al. 1969). 그와 같은 종속적 경제구조는 자립적 경제구조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식민질서의 현상유지를 위한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동아시아 각지에서 경제구조의 전환은 사회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외국자본 플랜테이션의 확장과 토착사회 지주계급의 등장에 따라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경제적 갈등과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부상과 고착에 따라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분쟁으로 확산된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대한 일차산품 공급기지 및 공업제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되는 식민경제의 대외적 종속구조는 공식적 식민화의 위기를 모면하는 중국 및 태국과 같은 준식민지의 경우에도 지극히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¹⁰⁾ 다수의 세력권으로 분할되는 중국은 1930년대에 이르면 영국권(인도, 말레이시아 포함), 미국권(필리핀 포함), 일본권(한국, 대만, 만주 포함)이 수출의 84%와 수입의 68%를 점유한다(표 3). 기타 네덜란드권(인도네시아 포함) 및 프랑스권

10) 중국은 90여개의 조약항(treaty ports)을 개방하고, 서구열강은 세력권을 분할하여 치외법권, 토지, 상사, 공장, 은행, 철도, 광산, 경찰, 관세, 우편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한다. 1930년대에는 외국자본이 철광 99%, 석탄 76%, 철도 93%, 해상운항 83%, 내륙운항 73% 등을 지배한다(스타브리아노스 1986: 290).

(인도차이나 포함)과의 무역도 동남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대외적 종속구조는 대내적으로 동남아와 동북아의 유기적 연계구조와 동전의 양면을 구성한다. 동남아와 동북아의 경제적 연계구조는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를 통하여 형성되고 강화된다. 예컨대 1860년부터 1908년까지 중국 전체 44개 세관의 위치가 동남 연안 24개(54.5%), 남부내륙 11개(25%), 동북연안 7개(15.9%), 북부내륙 2개(4.6%) 등이다. 전체의 80%가 동남아에 근접한 지역에 편중된다(Gang 2009: 16).

<표 3> 중국 내지(內地)와 열강의 무역, 1936년 (단위: 1,000 원)

지역	수입	비율(%)	수출	비율(%)
영국권	210,796	25.14	221,845	33.84
미국권	189,531	22.60	192,424	29.36
일본권	171,165	20.41	134,996	20.59
일본	153,577	18.31	102,367	15.61
한국	2,940	0.35	9,762	1.49
대만	3,251	0.39	4,846	0.74
만주	11,397	1.36	18,021	2.75
독일권	150,236	17.92	29,174	4.45
네덜란드권	79,186	9.44	21,294	3.25
프랑스권	36,429	4.34	51,561	7.87
소련권	1,236	0.15	4,210	0.64
합계	838,579	100.00	655,504	100.00

출처: 依田憲家 2004, 63, 表 2-4.

그러한 경제적 연계구조는 동아시아 역내의 일본제국을 통해서도 강화된다. 동남아에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한국, 대만, 만주, 중국 등지에서 보충되고, 동북아에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동남아 각지에서 보완된다. 그에 따라 일본의 이차산업과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의 일차산업이 연계되는 식민지적 종속구조가 형성된다. 예컨대

대두(大豆), 석탄, 생사, 철광 등에 대한 일본의 수입총액 가운데 만주로부터의 수입이 1917년 75%에서 1927년 80%까지 증가하는 반면, 1936년 고무, 원유, 황마, 주석 등에 대한 일본의 수입총액에서 동남아로부터의 수입은 68.5%에서 51%까지 모두 절반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依田憲家 2003: 140, 311; 依田憲家 2004: 25). 동남아와 동북아가 일본제국의 경제구조를 통하여 각종 일차산품의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긴밀한 상호의존의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식민경제의 대외적 종속구조와 대내적 연계구조는 양극적 ‘이중사회(dual society)’를 초래한다(Boeke 1980; King 2008). 동남아 각지에서 자급적 농업부문이 지배하는 전통적 토착사회와 외향적 상업부문이 지배하는 근대적 ‘서양사회’로 심각하게 양극화된 이중구조가 심화된다(Golay et al. 1969: 12). 그와 같이 근대적 시장경제와 전통적 자급경제 사이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된 이중구조는 ‘성장의 확산’ 아닌 ‘빈곤의 공유’를 초래한다. 동남아 식민사회의 이중구조에 대한 매개역할은 19세기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남아 각지의 화교사회가 담당한다.¹¹⁾ 그것은 전통적 토착사회는 충족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 광업, 플랜테이션 등 식민경제의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소산이다. 동남아 전역에서 화교사회는 주로 상업부문에 포진하여 ‘이중사회’의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동남아와 동북아의 유기적 연계구조를 강화한다(Hicks 1993: 139-42, 190-95).

11) 서구열강이 식민정책과 일본상품의 유입에 따라 동남아에 대한 일본인의 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동남아 각지에서 일인사회는 화교사회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와 대조되는 일본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대한다(Shiraishi and Shiraishi 1993; Jose 1999).

3. 문화이념적 기능

어떠한 지역질서도 그 정당성의 국제화와 사회화에 실패하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문화이념적 기능은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야만’을 전제하는 동아시아의 문명화로 집약된다. 사실 “19세기 동남아에서 영토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면서 ‘문명화의 소명’을 어느 정도 자임하지 않은 서구열강은 존재하지 않는다”(Owen 2005: 261). 동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유럽과 미국의 ‘문명’, 터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반개화(半開化)’, 아프리카, 호주, 대만의 ‘야만’을 대비한다(福澤諭吉 2007).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과업’을 자임하는 영국, 비서구사회에 대한 ‘문명화의 소명’을 자긍하는 프랑스, 세계의 문명화를 위한 ‘명백한 운명’을 자부하는 미국 등은 자국중심적 시각을 대변한다(Kratoska and Batson 1992: 250; SarDesai 1997: 141). 중국중심적 ‘문명’과 ‘야만’이 서구중심적 ‘문명’과 ‘야만’으로 전도되는 것이다.¹²⁾

중화질서가 지배하던 18세기 중반까지도 동아시아에 침투하는 서구세력은 중화질서의 조공의례를 중화문명의 특수한 표현형식으로 수용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전개되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세력균형의 반전에 따라 동양과 서양 사이 ‘문명’과 ‘야만’의 시각이 철저히 전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착사회의 전통문화가 가장 철저히 서구화되는 경우는 그것이 가장 허약하던 필리핀 정도에 불과하다. 당초 경제적 유인 대신 종교

12)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야만을 대조하는 시각은 제국주의자의 자만은 물론 민족주의자의 자성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한 민족주의 지도자에 의하면, “우리의 나라에는 수세기 동안 정신적, 문화적 생활과 지성적 진보가 전혀 없었다. 동양의 예술적 형태에 대한 예찬은 많지만, 그것은 20세기의 인민에게 역동적 발판을 제공하기 어려운 봉건적 문화의 낡은 잔재가 아니고 무엇인가?”(Owen 2005: 263).

적 유인이 식민화의 역사과정을 지배하는 스페인은 종교와 정치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신정일치의 식민지배를 통하여 민다나오(Mindanao)와 술루(Sulu) 등 회교지역을 제외한 필리핀의 전통문화를 기독교적 서구문화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정치구조와 문화전통이 강력하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의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한 대다수가 유교, 힌두교, 불교, 회교 등 종교적 전통을 고수한다.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명분은 서구적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바, 그 경우에도 필리핀 등 일부 지역과 지식계층 등 일부 계층을 이외에는 획기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태국과 중국의 경우 근대화에 대한 민족적 요구에 따라 서구교육이 주체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다른 식민지의 경우 근대적 서구교육은 주로 19세기 후반에 급증하는 식민지 경영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개시된다. 간접통치 지역은 전통적 지배세력에 대한 의존 때문에 서구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직접통치 지역은 식민지 관료기구와 시장경제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근대적 관리인력 및 기술인력의 수요 때문에 서구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과잉교육(over-education)’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불안정”의 위험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된다(Owen 2005: 262).

20세기에는 농촌지역은 토착언어를 통한 초등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도시지역은 서구언어를 통한 고등교육도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예외적인 사례는 한국 및 대만에 대한 ‘황민화(皇民化)’ 교육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화’ 교육이다. 필리핀의 경우 1920년 초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1백만 명을 상회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구교육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제한된 소수에 국한된다. 예컨대 1937년 현재 인도차이나는 인구 23백만 명에 대하여 초등학교 500,000 명과 대학생 600 명, 인도네시아는 인구 68백만 명

에 대하여 네덜란드어 교육학생 93,000 명으로서 대부분 초등학생이며 대학생은 496 명뿐이다(Owen 2005: 263-64). 필리핀 경우에는 200여만 명의 전체 학생 가운데 대학생이 7,000 명을 상회한다. 그러나 공식적 식민화를 모면하는 태국의 경우에도 1930년대 중반의 인구 14백만 명에 비하여 대학생은 800여 명에 불과하다(Owen 2005: 263-64).

V. 식민질서의 해체과정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서 19세기 중반 중국중심적 중화질서를 대체하는 서구중심적 식민질서는 20세기 중반 일본중심적 ‘대화질서’로 교체된다. 동아시아의 내생적 지역질서인 중화질서가 외생적 지역질서인 식민질서의 매개를 통하여 또 하나의 내생적 지역질서인 ‘대화질서’로 전환되는 것이다. 서구중심적 식민질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외적 동인과 지역내적 동인의 상승작용에 따라 그 정치군사적, 경제사회적, 문화이념적 기능의 근본적 한계를 노정한다. 그러한 식민질서의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하는 ‘대화질서’는 동아시아의 진정한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제국이 급속하게 부상하는 역동적 역사과정의 귀결이다. 그것은 한자와 유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북아로의 ‘북진론’과 경제와 정치의 현실적 역동성을 공유하는 동남아로의 ‘남진론’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다(한상일 2002: 29-31, 45-61; 矢野暢 1975; 伊藤幹彦 2005).

1. 지역외적 동인

세계대전(1914-18)과 경제공황(1929-30)은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의 해체를 추동하는 역사적 계기이다. 서구열강 내부에서 증폭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삼국동맹(Triple Alliance, 1902)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삼국협상(Triple Entente, 1907)의 균열과 갈등은 사상초유의 세계적 전쟁으로 표출된다(Albrecht-Carrié 1973: 257-59). 1차대전의 전쟁부담에서 자유로운 미국은 전후처리의 원칙으로서 민족자결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민족자결을 동부유럽에만 적용하기로 담합하는 제국공조체제에 분노한다. 1919년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은 그에 대한 기대와 좌절의 민족주의적 표현이다. 그러나 현상유지에 성공하는 동아시아의 제국공조체제는 1차대전에서 심각하게 약화되는 영국을 대체하여 미국이 주도한다(Kennedy 1987: 202; O'Brien 2002).

그러한 권력이전의 무대는 워싱턴(Washington) 해군군축회의(1921-22)로서 서태평양 및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전보장에 민감한 미국이 주도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국은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세력권의 현상유지에 합의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국은 주력함대의 비율을 미국 5, 영국 5, 일본 3, 프랑스 1.67, 이탈리아 1.67 등으로 배분한다(Albrecht-Carrié 1973: 416-17). 그 5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중국 등 9국은 중국에 대한 국가주권, 영토보전, 기회균등을 공약한다. 그 모든 합의는 1931년 만주점령 이후 미국 및 영국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일본의 불만으로 인하여 1936년 종료된다. 그러한 ‘워싱턴체제’는 미국의 주도와 일본의 협력을 통하여 1920년대 동아시아 제국공조체제의 현상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워싱턴체제’는 지역패권에

대한 일본의 야망을 고무함으로써 제국공조체제의 해체를 예고한다(祁懷高 2008).

1929년 세계적 경제공황은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의 해체를 가속한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긴밀하게 연계되는 동아시아의 종속적 식민경제는 공황의 파탄에서 헤어나기 전에 다시 일본제국의 도전과 그로 인한 2차대전의 파국에 빠져든다. 경제공황의 영향은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는 민족주의와 지역적 차원에서 악화되는 경제파탄을 통하여 동아시아에 파급된다. 세계적 차원에서 고조되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유럽대륙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을 선동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고무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붕괴되는 종속적 식민경제는 식민지의 ‘복지와 진보’에 대한 제국주의적 상징조작의 허구를 폭로함으로써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균열을 가속한다. 쌀, 고무, 주석, 커피, 설탕 등 농산물과 광산물 등 일차산품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동남아의 종속적 식민경제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파탄에 따라 파국적 충격에 직면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농산물 수출이 1928년에서 1935년까지 76% 감소한다. 자바의 경우 최대 수출상품 설탕의 가격이 1929에서 1934년까지 60% 하락하고, 설탕과 관련된 지대와 임금이 1929년에서 1936까지 92% 급락한다. 그에 따라 1931년에서 1935년까지 제당공장이 75% 감소하고,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86% 축소된다. 환금작물 중심지인 인도네시아 외방제도(Outer Islands)의 경우 1925년에서 1935년까지 수출이 3분의 2 이상 감소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929년에서 1932년까지 고무 수출은 81% 급감하고, 주석 수출은 73% 감소한다. 코친차이나의 경우는 쌀 가격이 1929년에서 1934년까지 73% 하락한다. 영국시장의 고무 가격은 1929년에서 1932년까지 77% 급락한다. 인도차이나의 고무 수출은 1930년에서 1932년까지

56% 감소한다(Elson 1992: 186-88; Owen 2005: 269).

일차산품 수출과 공업제품 수입의 국제분업에 기초하는 종속적 식민경제에 대한 파국적 경험은 동남아 전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한다(Golay et al. 1969: 18). 동남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경제공황의 파괴적 효과에 대응하여 밑으로부터 농민대중의 폭력적 투쟁과 위로부터 지식계층의 급진적 도전이 강화된다. 예컨대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에서는 농민봉기가 광범하게 확산되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조직되고, 미얀마에서는 지식계층의 민족주의가 급진적 사회주의로 경사하며, 태국에서는 ‘민주혁명’을 표방하는 군사정변이 발생하여 절대왕조가 전복된다(Kratoska and Batson 1992: 253-90). 급진적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이와 같은 사태는 모두 동아시아 외부의 정치변동과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균열과 해체를 추동하는 내부적 동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2. 지역내적 동인

식민시대 종반에 이르러 동아시아 각지에서 부상하는 식민지 민족주의는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의 균열을 확대한다. “민족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20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정치지형을 재편하는 유일하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감성적인 요소이다”(SarDesai 1997: 145).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민족주의는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 민족적 정체성이 비교적 분명한 ‘역사적 공동체’의 민족해방을 가동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역사적 정체성이 비교적 모호한 ‘상상적 공동체’의 국가형성을 추동한다. 외부침략에 저

향하는 전통적 민족의식을 넘어서 제국주의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진보를 지향하는 근대적 민족주의는 역설적으로 제국주의 자체의 성과이다.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민족주의의 확산을 주도하는 중심적 세력은 식민지배의 수요에 따라 근대적 서구교육으로부터 배출되는 도시 지식계층인 것이다(SarDesai 1997: 147; Owen 2005: 256-67).

그와 같이 서구사회에서 태동하는 민족주의가 다시 서구사회에 도전하는바, 강자의 무기가 그에 대항하는 ‘약자의 무기’로 반전된다.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가장 대조적인 두 사례는 필리핀과 중국이다. 필리핀의 경우 전통적 정치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토착사회가 식민지배의 영향에 따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민국가를 지향한다. 중국계 및 스페인계 외래민족과 토착민족의 혼혈 메스티조(mestizo) 가운데 서구교육으로 ‘계몽된’ 지식계층 일루스트라도(Ilustrado, the Enlightened)가 그 민족주의를 주도한다. 중국의 경우 서구교육을 통하여 배출되는 근대적 지식계층은 화이질서(華夷秩序)의 중화제국을 탈피하여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코페르니쿠스적(Copernican) 전환’을 단행한다. 그 두 전형적 사례는 동아시아 식민지배의 해체에 대한 근대적 민족주의의 심대한 영향을 대변한다.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의 민족주의는 그 양극 사이의 다양한 지점에 위치한다.

서구세력을 제패한 러일전쟁(1904)의 영향을 희석하는 일본과 서구열강의 협력으로 인하여 동남아 민족주의의 모델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교체된다(Kratoska and Batson 1992: 252-53). 1911년 신해(辛亥)혁명과 1927년 국공(國共)분열의 영향은 동남아 각지 화교사회를 통하여 토착사회에도 광범하게 파급된다. 화교사회의 중국귀속적 민족주의는 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량 때문에 동남아 민족주의에 다양하게 기여한다(SarDesai 1997: 148; Owen 2005: 255).

20세기 전반 필리핀(1907), 중국(1912), 베트남(1927), 인도네시아(1927) 등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에 등장하는 ‘국민(민족)당(Nationalist Party)’과 인도네시아(1920), 중국(1921), 한국(1924), 인도차이나(1930), 필리핀(1930) 등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에 출현하는 ‘공산당(Communist Party)’은 모두 동아시아의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에 대한 체제외적 대안을 지향하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급속한 확산을 실증한다.

서구교육의 보급에 따라 교육기회를 선점하는 도시 중간계층은 식민질서의 위계구조에서 신분상승의 엄격한 한계에 직면한다. 도시화와 서구화의 진전에 따라 인쇄매체가 발전하고 신문발행이 증가한다. 동아시아 각지에서 민족어문에 대한 주체의식이 고양되고, 그것을 사용한 인쇄매체의 파급효과가 확산된다(Anderson 1991; Owen 2005: 266-67). 각종 일간, 주간, 월간 언론매체는 외부세계의 사건과 사상을 전달하고 내부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지식계층의 비판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양한다. 그러한 언론매체의 확산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이 비교적 분명한 동북아의 ‘역사적 공동체’나 그것이 비교적 모호한 동남아의 ‘상상적 공동체’를 막론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도전이 강화된다. 그 결과 1920년대에는 동아시아 각지에서 각종 민족주의적 정당조직이 출현한다. 그 지도세력은 대부분 서구교육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이다(Kratoska and Batson 1992: 250-51).

서구중심적 식민질서의 해체를 추동하는 지역내적 동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도전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명치유신 이후 국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1889년 미국, 독일, 러시아와의 불평등조약이 폐기되고, 1890년 영국과의 불평등조약이 폐기된다. 1889년 제국헌법이 공포되고, 1890년 내각수상의 ‘주권선’ 및 ‘이익선’ 개념이 제출된다. 전자는 본국영토를 가리키고 후자는 인접국가를 가리키는바, 그

것은 일본제국 세력권의 초점으로서 한반도가 주목되는 ‘정한론(征韓論)’의 전형이다(熊志勇·蘇浩 2005: 152). 그와 같은 사태의 급속한 전개과정에서 명치유신의 방어적 민족주의는 점차 그 공격적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것은 서세동점에 대항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중흥을 표방하며,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한 도전을 고무하는 두 가지의 이념적 조류는 바로 전통적 아시아주의와 서구적 제국주의이다 (Shimizu 1993: 49).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하는 ‘선진적’ 동북아 중심의 아시아연대 논리와 동아시아의 경제적 보완성을 강조하는 ‘후진적’ 동남아 중심의 대동아공영권 논리는 근본적 차별성을 내포한다(김경일 2005: 234-35). 그러나 그러한 차별성은 명치유신 이후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개과정을 일관하여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북진론’과 ‘남진론’이 거시적 국가전략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한가한 관념적 유희에 불과하다(伊藤幹彦 2005). 한반도를 통한 대륙(중국)으로의 세력확장을 도모하는 ‘북진론’은 1910년 한국합병, 1931년 만주점령, 1937년 중일전쟁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 대만을 통한 해양(南洋)으로의 세력확장을 기획하는 ‘남진론’은 1789년 유구합병, 1895년 대만합병, 1914년 서태평양제도 점령, 1941년 동남아점령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¹³⁾

1931년 일본의 만주점령은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역사적 계기이다.

13) 1885년 대만합병 이후 남진론의 군사행동은 유보됨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작업은 철저하게 추진된다. 예컨대 동남아에 대한 정보수집이 대만총독부(1895)의 조사과 및 외사과, 대만은행(1899)의 남중국지점(廈門, 홍콩, 福州, 汕頭, 廣州, 上海, 漢口) 및 동남아지점(Singapore, Surabaya, Semarang, Jakarta, Bangkok), 남만주철도주식회사(1906)의 동아시아조사국을 통하여 치밀하게 진행된다(Peattie 1993: xxii-xxiii).

세계적 제국공조체제에 의존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일본을 규탄하고, 동아시아 제국공조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일본을 제동하기 시작한다. 그에 대응하여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6년 워싱턴조약을 탈퇴하며, 1937년 중국에 대한 전면전에 착수하고, 1940년 독일 및 이탈리아와 추축동맹(Axis Alliance)을 결성하며, 1941년 ‘대동아전쟁’을 개시하고, 1942년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을 선포한다. 명치유신 초기에 재야권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1차대전 시기에는 제도권에 진입하고,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외교정책으로 전환된다(Saaler 2007: 14-15). 그에 따라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는 동아시아 ‘대화질서’의 일본중심적 단독패권체제로 재편된다.

VI. 결 론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에 대한 한국적 접근시각은 일반적으로 동북아중심적 편향이 심각하다. 한자와 유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협의의 동아시아 즉 동북아가 지나치게 부각된다. 그것은 중화질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페어뱅크 패러다임’(Fairbank 1968)의 파편적이고 정태적인 접근시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북아중심적 접근시각은 중화질서, 식민질서, ‘대화질서’, 냉전질서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경제와 정치의 현실적 역동성을 공유하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의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안(開眼)이 요청된다. 그러한 역동성은 ‘월드뱅크 패러다임’(World Bank 1993)의 선일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시각을 통하여 해명될 수 있다. 중화질서,

식민질서, ‘대화질서’, 냉전질서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 차원에서 형성되고 운용되며 해체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서구중심적 제국공조체제에서 동남아와 동북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식민질서의 형성과정 및 해체과정의 역동성과 그 지리구조 및 기능구조의 중층성을 구명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한 한국의 동북아중심적 접근시각에 내재하는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이다. 동아시아의 식민질서에서 그 형성과정의 외부적 동인(서구 자본주의, 서구 민족주의) 및 내부적 동인(중국의 약화, 일본의 부상)과 해체과정의 외부적 동인(1차대전, 경제공황) 및 내부적 동인(식민지 민족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서 동남아와 동북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드러난다. 동아시아 식민질서의 지리적 구조(동남아 군도권, 동남아 반도권, 동북아 대륙권)와 기능적 구조(정치군사적 기능, 경제사회적 기능, 문화이념적 기능)에서도 동남아와 동북아의 유기적 상호의존이 밝혀진다. 따라서 동남아는 간과하고 동북아에만 주목하는 한국적 접근시각은 자국중심적 편향에 불과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한국적 접근시각의 동북아중심적 편향에 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시각은 동북아중심적 한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중국과 일본의 접근시각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다. 한국적 접근시각은 과거 사실의 해명, 현재 동향의 분석, 미래 전망의 구상 등 모든 시간적 차원에서 심각한 공간적 한계에 직면한다. 최근 한 중국학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동북아 국가이면서 동남아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아시아 여러 지역의 연결점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문명과 가까이 있고 [그들을] 연결하는 곳이다”

(왕후이 2009). 일본의 접근시각도 해양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면 중국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동아시아에 대한 파편적이고 정태적인 접근시각에서 전일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시각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제어: 제국공조체제, 동남아군도권, 동남아반도권, 동북아대륙권, 정치군사기능, 경제사회기능, 문화이념기능

<참고문헌>

- 김경일. 2005. “대동아공영권의 ‘이념’과 아시아의 정체성.”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서울: 창비.
- 김기정. 2005. “세계자본주의체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동.”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서울: 창비.
-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 백영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서울: 창비.
- 스타브리아노스, L. 1986. 『제3세계의 변동과 구조』. 한완상 역. 서울: 일월서각.
- 와다 하루키. 2003.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이원덕 역. 서울: 일조각.
- 왕후이. 2009. “민주화는 80년대의 문제, 중 최대모순은 도농격차.” 『중앙선데이』. 10월 4일.
-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서울: 한길사.
- 한상일. 2002. 『아시아연대와 일본제국주의』. 서울: 오름.
- Albrecht-Carrié, René. 1973.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Anderson, Benedict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

London: Verso.

Beasley, William G. 1987. *Japanese Imperialism: 1894-1945*. Cambridge: Clarendon Press.

Blussé, Leonard. 2009. "Chinese Century." In Geoff Wade (ed.), *China and Southeast Asia*. Vol. III. London: Routledge.

Boeke, J. H. 1980. "Dualism in Colonial Societies." In Hans-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Elson, Robert E. 1992. "International Commerce, the State and Society." In Nicholas Tarling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vers, Hans-Dieter (ed.). 1980. *Sociology of South-East Asi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Fairbank, John King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Fernandez, Alejandro M. 1977.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Quezon: NSDB-UP Integrated Research Program.

Frank, Andre Gunder.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ang, Deng. 2009. "Decline of China's Sea Power." In Geoff Wade (ed.), *China and Southeast Asia*. Vol. IV. London: Routledge.

Golay, Frank H., Ralph Anspach, M. Ruth Pfanner and Eliezer B. Ayal. 1969. *Underdevelopment and Economic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ack, Karl and Tobias Retting (eds.). 2006. *Colonial Armies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Hamashita, Takeshi. 2008. *China, East Asia and the Global Economy*.

- Linda Grove and Mark Seldon (eds.). London: Routledge.
- Hicks, George L. (ed.). 1993. *Overseas Chinese Remittances from Southeast Asia, 1910-1940*. Singapore: Select Books.
- Hobsbawm, Eric. 1989. *The Age of Empire: 1875-1914*. New York: Vintage Books.
- Ishii, Yoneo. 1998. *The Junk Trade from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Kennedy, Paul. 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Vintage Books.
- King, Victor T. 2008. *The Sociology of Southeast Asia*. Copenhagen, Denmark: NIAS Press.
- Kratoska, Paul and Ben Batson. 1992. "Nationalism and Modern Reform." In Nicholas Tarling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garda, Jr., Benito J. 1999. *After the Galleons*.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O'Brien, Patrick K. 2002. "The Pax Britannica, American Hegemony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1846-1914 and 1941-2001." A Paper Presented at the 13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History Association at Buenos Aires, 23 July.
- Owen, Norman G. (ed.). 2005. *The Emergence of Modern Southeast Asi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Peattie, Mark R. 1993. "Foreword." In George L. Hicks (ed.), *Overseas Chinese Remittances from Southeast Asia, 1910-1940*. Singapore: Select Books.
- Purcell, Victor. 1965.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2nd Ed.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Saaler, Sven. 2007.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In Sven Saaler and J. Victor Koschmann (eds.),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New York: Routledge.

SarDesai, D. R. 1997. *Southeast Asia: Past & Present*. Boulder: Westview.

Shimizu, Hajime. 1993. "Southeast Asia as a Regional Concept in Modern Japan." In Saya Shiraishi and Takashi Shiraishi (eds.), *The Japanese in Colonial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Shiraishi, Saya and Takashi Shiraishi (eds.). 1993. *The Japanese in Colonial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Tarling, Nicholas (ed.). 1992.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1. *Imperialism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Curzon.

Thompson, William R. 1988. *On Global War: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Wade, Geoff. 2006. "Ming Colonial Armies in Southeast Asia." In Karl Hack and Tobias Retting (eds.), *Colonial Armies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Wyatt, David K. 1982. *Thailand: A Short History*. Chiang Mai, Thailand: Silkworm Books.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李雲泉. 2004. 『朝貢制度史論』. 北京: 新華出版社.

- 李 濤. 2007. 『大和魂』.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 熊志勇·蘇浩. 2005. 『中國近現代外交史』.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楊金森·范中義. 2005. 『中國海防史』. 上·下冊. 北京: 海軍出版社.
- 王賡武. 2004. “新加坡和中國關於東南亞研究的兩種不同觀點.” 『南洋問題研究』 2.
- 王正毅. 2000.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商務印書館.
- 汪 暉. 2004.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上卷 二部. 北京: 三聯書店.
- 曹大臣. 2009. 『近代日本在華領事制度』.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陳峰君·祁建華. 2007. 『新近地區主義與東亞合作』.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 祁美琴. 2007. “對清代朝貢體制地位的再認識.” 『史苑』 11.
- 祁懷高. 2008. “華盛頓體系與大東亞新秩序比較研究.” 『東南亞研究』 1.
- 郝祥滿. 2007. 『朝貢體系的建構與解構』.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何偉亞. 2007. 『英國的課業』. 劉天路·鄧紅風 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矢野暢. 1975. 『‘南進’の系譜』. 東京: 中央公論社.
- 依田憲家. 2003. 『近代日本與中國, 日本的近代化』. 卞立強·陳生保·任清玉 譯. 上海: 山東遠東出版社.
- _____. 2004. 『日本帝國主義研究』. 卞立強 外 譯. 上海: 山東遠東出版社.
- 伊藤幹彦. 2005. 『日本アジア關係史研究』. 東京: 星雲社.
- 濱下武志 編. 1999. 『東アジア世界の地域ネットワーク』. 東京: 山川出版社.
- 福澤諭吉. 2007. 『文明論概略』. 北京編譯社 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9. 12. 27 투고; 2010. 1. 25 심사; 2010. 2. 25 게재확정)

<Abstract>

East Asia's Colonial Order and Southeast Asia: The West-Centric Concert of Empires

Park Sa-Myu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overcome the Northeast Asia-centric perspective on East Asia by elucidating essential linkages betwee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formation, operation and dissolution of regional orders. Th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by a colonial order based on the West-centric Concert of Empires. The juxtaposi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the colonial order in East Asia demonstrated dynamic interaction betwee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geographic structure of the Southeast Asian archipelago, the Southeast Asi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continent, on one hand, and in the functional structure of political-military, social-economic and cultural-ideological dimensions, on the other, the colonial order witnessed organic interdependence between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In this context the prevailing Korean perspective focused on Northeast Asia in studying the historical regional orders of East Asia

should be deemed excessively ethnocentric.

Key Words: Concert of Empires, Southeast Asian archipelago, Southeast Asian peninsula, Northeast Asian continent, Political-military function, Social-economic function, Cultural-ideological function